2026. 3.30

FI Weekly

채권 김지나
6148 / jnkim0526@eugenefn.com

WGBI 편입 점검하기

❝ **4월부터 FTSE Russell의 글로벌 채권지수인 WGBI(World Government Bond Index) 자금의 편입이 시작. 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2.5조 달러 내외**로 알려진 가운데, 지수 내 비중에 따라 4월~11월 중 월간 분할로 자금 유입이 예정. **한국 편입비중은 지난 10월 말 반기 리뷰 기준으로 2.08%이며 월간 0.26%p씩 유입될 예정. 환율과 국채발행 규모에 따라 비중은 소폭 변동**될 수 있음.

❝ 추종자금 2.5조 달러 지수내 비중 2.08%로 계산했을 때 **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규모는 520억달러이며 월간 65억달러로 추정. 이는 환율 1,46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간 내 75.9조원, 월간 9.5조원 수준.**

❝ **2020년 이후 외국인의 월평균 원화채권 순매수 규모는 대략 8조원. 본 지수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 효과는 외국인2** 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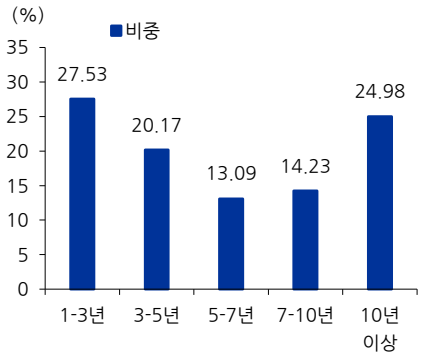
❝ **WGBI 지수 편입 시 보통 편입되는 국가의 채권시장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기본. 다만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물 투자에 비중을 뒀던 것과 달리, 본 지수 편입으로 중장기 투자자로 구성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신규 자금 유입의 수혜**를 볼 것. 지수 내 편입된 채권의 만기별 비중을 보면, 1~3년 구간이 27.5%로 가장 높고, 10년 이상이 24.98%, 3~5년이 20.17%, 7~10년 14.23%, 5~7년 13.09%임. 지역별 듀레이션도 아시아태평양이 7.71년으로 가장 김. **WGBI 지수 대비 국내 채권시장은 초장기물 비중이 높지만 보험사들의 매수로 인해 실제 유통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초장기물 강세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요인.**

❝ 다만 **WGBI 최초 거론 & 편입 시점 대비 지금은 채권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. 원화의 큰 폭 약세가 반영될 경우 지수 내 편입비중은 1%대로 낮아질 수 있음. 주식시장 약진으로 인한 글로벌 머니무브와 전쟁에 따른 채권 투자심리 악화 등은 WGBI를 추종하는 채권펀드 자금의 규모 자체를 줄였을 가능성**이 있음. 편입 발표 이후 실제 자금 유입이 미뤄진 것도 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요인.

❝ 그럼에도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**국내 금리의 캐리 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. 현재 WGBI 지수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채권의 평균 이표금리는 1.9%이며 총지수의 이표금리는 2.72%**임. 한국 국채금리는 전구간 3% 중반 이상으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들 대비 높고, 달러 헷지 수익률도 2% 중반에 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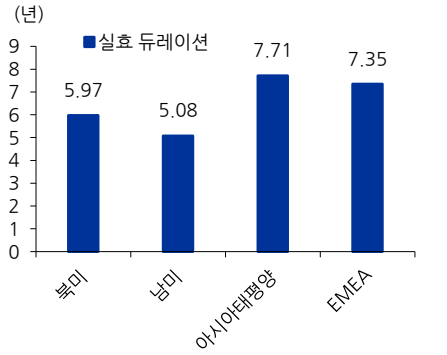
❝ 종합하면 **WGBI 편입은 절대적인 금리 하락 요인이라기 보다, 지금과 같은 금리에 비우호적인 환경(전쟁, 인플레이션)을 상쇄시켜 금리 상승을 일부 제어하는 요인** 정도로 기대. 편입시점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지만, 그 이후 편입 자금 급감 시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.

WGBI 만기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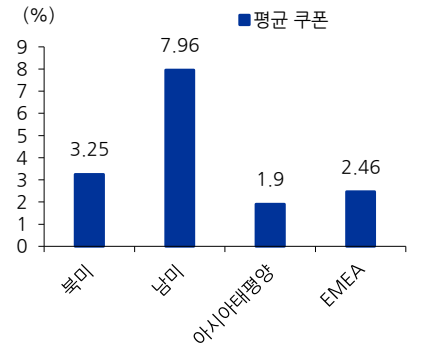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WGBI 지역별 듀레이션


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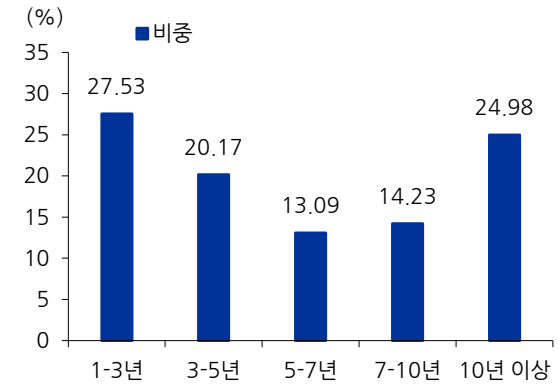
WGBI 지역별 이표금리


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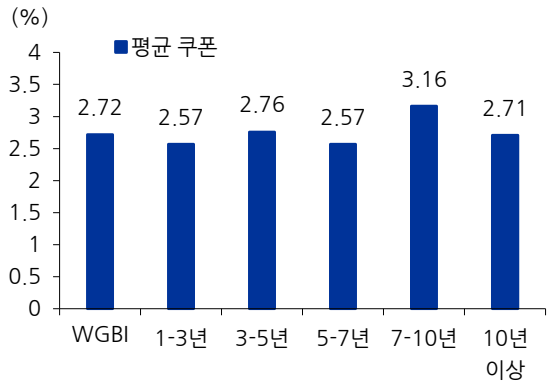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WGBI 만기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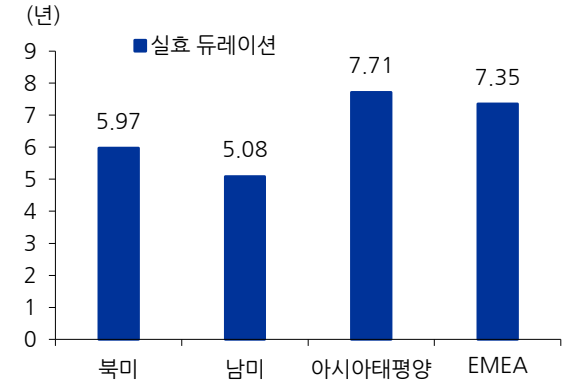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WGBI 만기별 이표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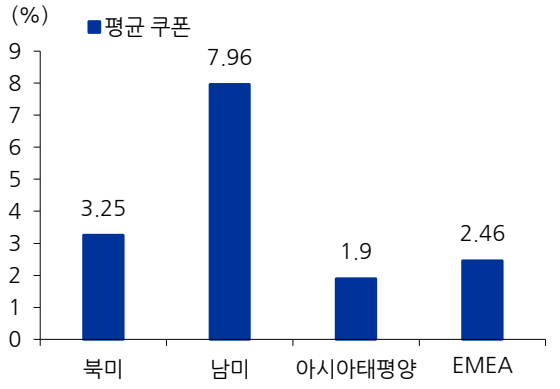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WGBI 지역별 듀레이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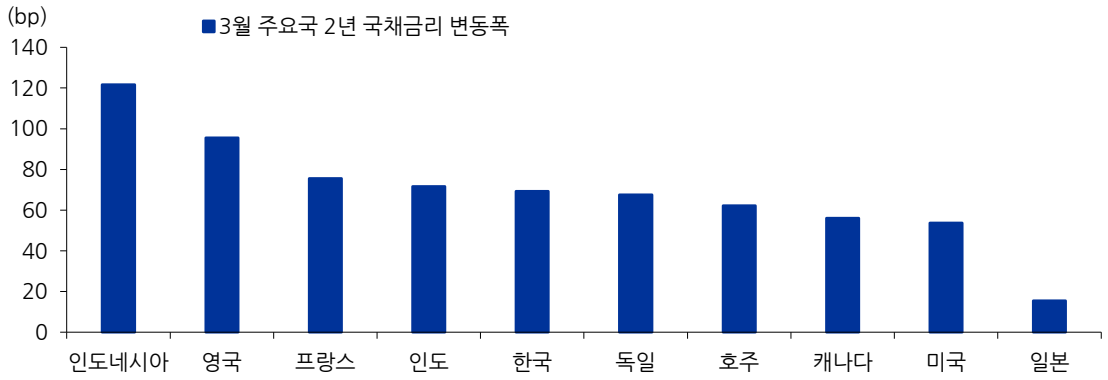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WGBI 지역별 이표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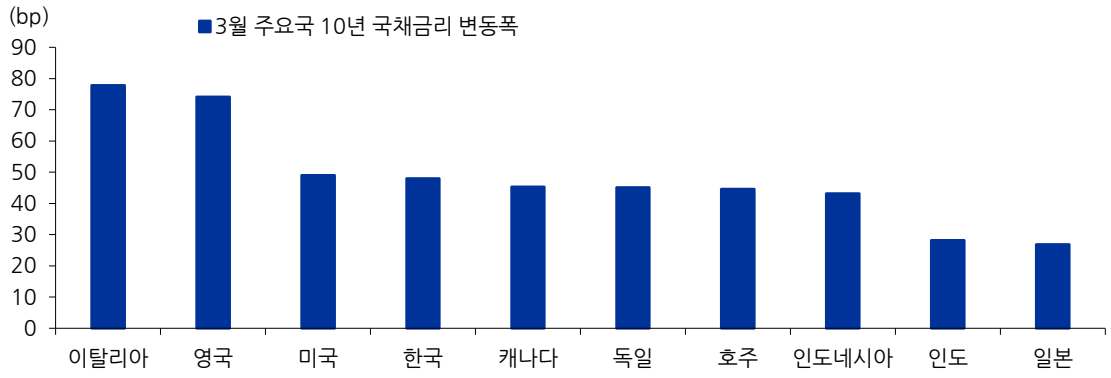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 Russell, 유진투자증권

전쟁 이후 주요국 2 년 금리 등락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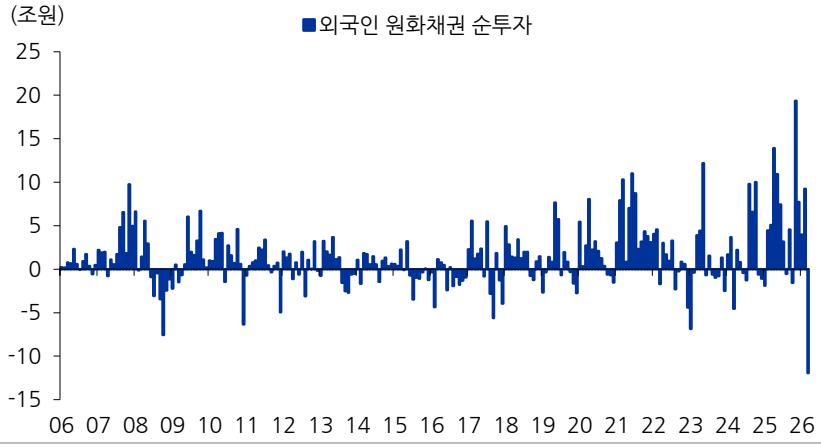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전쟁 이후 주요국 10 년 금리 등락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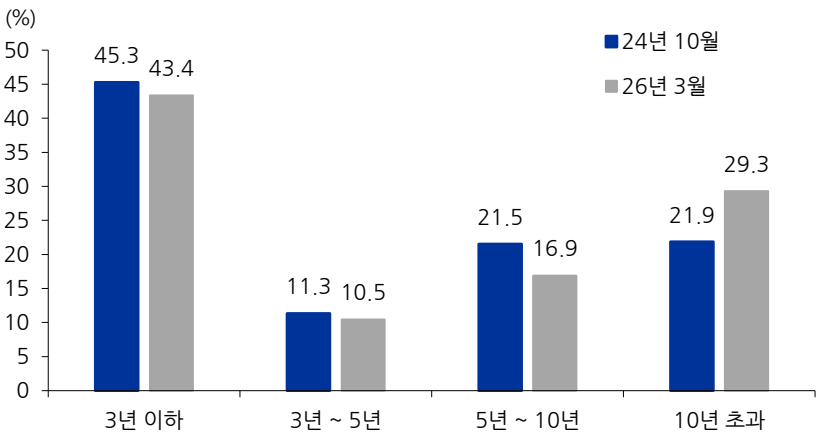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원회채권 순투자 추이



자료: 연합인포맥스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만기별 보유비중 변화



자료: 연합인포맥스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